한탄강 스토리텔링

▶ DMZ와 맞닿은 정자연(亭子淵)

정연철교에서 바라본 정자연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탄강의 최상류는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남방한계선 일대이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금강산전기철도가 지나가던 곳이고 아직도 정연철교가 남아있다. 그리고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인 겸재 정선이 금강산 가던 길에 잠시 머물며 그린 <정자연도>로 유명한 곳이다. 정자연(亭子淵)이란 연못같이 아름다운 한탄강과 현무암 절벽에 세워진 8칸의 멋진 정자를 함께 일컫는다. 조선 중기 광해군 때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월탄(月灘) 황근중은 인조반정으로 자리에서 밀려나자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과 벗하며 시문이나 짓고 울분을 달래고자 창랑정(滄浪亭)이란 정자를 세웠다. 창랑이라는 이름은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詞)」 가운데 “창랑의 물 맑으면 내 갓끈을 빨 것이요, 창랑의 물 흐리면 내 발 씻으리로다.”라는 문구에서 인용한 것이다. 굴원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 인물로 정적들 모함으로 여러 번 유배를 당했다. 그는 유배지 강가를 하염없이 거닐면서 울분을 삭히고 시를 짓기도 하면서 10년간 방랑생활을 보낼 무렵 조국인 초나라가 진(秦)나라에 멸망당하자 온몸에 돌을 매달고 미뤄 강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 중국에서는 굴원이 자결한 날인 음력 5월 5일을 단오절(端午節)이라고 해 추모하고 있다. 현재 중국·홍콩·마카오 등지에서 용선을 타고 북을 치면서 경주를 벌이는 용선경도(龍船競渡)는 당시 굴원의 시신을 찾고자 백성들이 너도나도 배를 타고 와서 물고기가 시신을 훼손치 못하도록 북을 치고 쫓으며 물속을 휘저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겸재 정선이 그린 정자연도

정연철교에서 한탄강 상류 쪽을 바라다보면 철원과 김화를 잇는 콘크리트 다리가 보이고 그 뒤로 군부대와 남방한계선 철책이 보인다. 한탄강 서쪽으로 경사가 급하고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 곳에 군진지가 있는데 이를 멸공OP라고 부른다. OP는 Observation Post의 약자로 군대의 최전방 관측초소를 일컫는다. 이 멸공OP를 기준

김화지역에서 바라본 오성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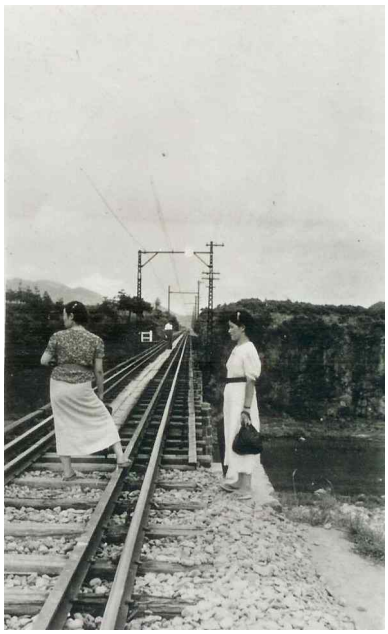
으로 산등성이를 따라 아래쪽으로 남방한계선 철책이 세워져 있고 한탄강을 가로질러 이어진다. 그 너머로는 DMZ(비무장지대)가 펼쳐져있고 그 한가운데 휴전선이 지나고 있다. 결국 한탄강은 DMZ에서 발원하는 셈이다. 멸공OP에 오르면 DMZ와 북방한계선, 북한초소, 북녘 땅이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저 멀리 평강군에서 시작된 한탄강 물줄기가 선명하게 보이고, 우측으로는 수복직후 김화주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민들레벌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한편 저 멀리로는 현재 북한의 수중에 있는 오성산(1,062m)의 위용이 주위를 압도한다. 6.25전쟁 당시 북한 김일성은 이 오성산을 한국군 장교 군번 3트럭과도 바꾸지 않겠노라고 호기를 부렸다. 군사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말이고, 날씨가 맑은 날은 의정부까지 관측된다고 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 오성산을 차지하고 지켜낸 전투를 '상감령 전역(上甘嶺戰役)'이라고 부르며 전체 6.25전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승전으로 기록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에 맞서 굳세게 항전한 정신을 높이 기리기 위해 <상감령> 이란 영화도 제작되었다. 그리고 그 영화주제가인 '나의 조국'은 중국의 애국가로 여겨지고 있으며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과 후진타오 주석 백악관 방문 만찬장에서 연주되기도 했다. 이 상감령전투를 한국군은 저격능선전투(1952.10.14.~11.25.)라고 해서 불리한 지형조건에서도 중공군의 인해전술 파상공세를 막아낸 전투로 기록하고 있다.

▶ 금강산전기철도가 지나던 정연철교

정자연 위를 지나는 정연철교

정연철교는 현무암을 타원형으로 둥그렇게 20여m 쌓아올린 교각이 참 아름답다. 철교에는 금강산까지 90km 남았다고 적혀있어 금방이라도 운행할 것만 같은 분위기다. 한편 정연철교는 태평양전쟁 때 미군의 폭격으로 서쪽의 맨 끝 교각이 일부 부서지고 무너졌다. 정연철교 밑의 강물은 최상류임에도 불구하고 물살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요하게 흐른다. 그리고 최전방 청정지역이라서 그런지 강물 색깔은 유난히 맑은 쪽빛이고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물결이 일렁거리고 따사로운 햇빛이 반사되어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류 쪽으로 역류하는 것 같다. 정연철교에서

남쪽 하류 쪽으로 바라보면 강의 동쪽은 주상절리 절벽이 일렬로 쭉 2km 정도 이어져 있다. 절벽 위쪽으로는 가지런히 나무가 연이어 서있고 절벽 중간 사이사이에 진달래가 피어있는데 검은색 현무암과 대비되어 눈에 딱 띈다. 강의 서쪽은 지뢰지역이어서 수풀이 무성하다. 전쟁이 끝나고 60년간 사람들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곳이라 천연 밀림 같다. 제멋대로 자란 나무들이 얼기설기 얽혀있고 종류를 알 수 없는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봄철이라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나 연한 녹색이 두드러지고 까치를 비롯한 새 소리가 물소리와 어우러져 정겹다. 지뢰가 묻혀있는 곳은 겸재 정선의 <정자연도>를 보면 조선시대부터 이미 몇 채의 가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류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일제강점기 금강산 전철이 정차했던 정연역과 그 주변 상가들의 집터들이 눈에 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정연철교

금강산전기철도는 1919년 착공해 1924년 8월 1일 1차로 철원~김화 구간을, 1931년 7월 1일 2차로 철원~내금강 전 구간 116.6km를 개통하였다. 부설 목적은 김화·금성·창도 지역의 유화철을 태평양전쟁 전략물자로 수송하고, 서울에서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금강산 탐승객들로 경원선과 금강산전철의 환승역인 철원역은 늘 붐볐다. 한편 금강산전기철도는 철원주민들에게 일상생활의 교통수단이자 수송수단이었다. 철원 동부지역과 김화·평강지역 학생들에게는 철원공립보통학교나 철원중학교에 갈 수 있는 중요한 통학수단이었다.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철원읍내에 볼일 보러 가려해도 이 철도를 이용해야 했다. 그리고 당시 철원지역 초등학생들 대부분은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었다. 주로 당일치기로 새벽 3~4시에 철원역에서 출발해 내금강에 도착하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금강산전기철도는 당시 행정구역상으로 철원군(6역)에서 출발해 평강군(1역) 김화군(17역) 회양군(4역)까지 총 28개의 역이 있었다. 주요 역으로 철원·양지·정연·김화·금성·창도·현리·단발령·내금강 등이 있었고, 현재 철원군에 속한 역은 철원-사요-동철원-동송-양지-이길-정연-유곡-금곡-김화-광삼 등이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10월 전쟁물자 부족으로 창도~내금강 구간 궤도를 철거하였고 6.25전쟁으로 전 구간이 폐선 되었다. 당시 놓였던 철도 레일은 아예 없고 현재 흔적과 윤곽만이 남아있다.

▶ 한탄강과 화강이 만나는 당구미 합수지

삼합교에서 바라본 한탄강 최상류

정연철교에서 하류 쪽으로 2km 내려오면 한탄강 위에 철원과 김화를 잇는 커다란 다리가 있다. 이 다리의 이름이 삼합교(三合橋)이고 다리에서 좀 더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한탄강과 화강(花江 남대천)이 만나는 당구미 합수지가 나온다. 평강에서 발원한 한탄강 원류와 김화에서 발원한 제1지류가 만나서 사람 인(人)자 모양을 이루고 강을 경계로 세 지역으로 나뉜다. 왼쪽 위가 평강군이고 오른쪽 위가 김화군, 아래가 철원군이다. 두 강이 합류하는 지점은 3개 군이 합류하는 지점이어서 삼합교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삼합교는 벌판 한 가운데 위치하고 강 양쪽 제방을 연결해 놓은 것이라 들판에서 보면 무척 높아 보인다. 두 강물이 만나는 지점은 강폭이 넓다. 홍수기에 강물이 범람하면 강 유역면적은 자연히 넓어지고 그 정도가 심하면 주위 농토까지 넘친다. 당구미 합수지 양 옆으로는 현무암이나 화강암 절벽이 눈에 안 띈다.

한탄강과 화강이 만나는 곳

넓은 강바닥에는 자갈들이 쫙 깔려있고 모래사장도 군데군데 발달했다. 강물의 수량이 많지 않아서 강이라기보다 얕은 개울 같다. 강물이 합쳐지는 곳과 그 아래는 경사가 있어서 물의 흐름소리가 제법 크다. 강물의 양은 적지만 물고기와 다슬기 등이 많이 눈에 띈다. 물고기가 많다 보니 먹이가 풍부해 백로 등 여름 철새들이 쉼 없이 공중을 날고 있다. 백로 2~3마리가 공중을 선회하며 이곳에서 저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주위의 풍광과 어울려 평화롭기 그지없다. 백로 이외에 꾀꼬리와 뻐꾸기 등 여름철새들 지저귐이 강물 흐르는 소리와 섞여서 합창하듯이 들린다. 이따금씩 정적을 깨는 꿩 울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강 양옆으로는 누런 갈대와 온갖 수풀들이 깔려 있고 그 뒤로 벚나무와 살구나무 꽃이 만발하여 하얀 물감을 뿌려놓은 듯하다. 강둑 제방에는 노란 애기똥풀이 지천으로 피어있고 가시가 날카로운 두릅나무들도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저 멀리 북쪽으로는 오성산이 보이고, 동쪽에는 도창리 벌판과 비닐하우스, 마을의 주택들이 또렷하게 보인다. 한탄강 건너 남동쪽으로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야트막한 산자락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너머가 토성리 마을이다. 이곳의 산들은 대부분 민간인출입금지구역이라 나무가 우거지고 수풀이 무성하다.

▶ 고요하기 그지없는 정연리 한탄강

한탄강 제방에서 바라본 정연리 마을

정연리 마을 앞 한탄강 폭은 70~80m에 이를 정도로 넓고 강물은 연한 쪽빛을 띠며 물결은 잔잔하다. 이곳의 강물은 하류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물결이 일고 햇빛이 반사되면서 거의 멈춰있는 것 같다. 강둑의 제방은 7~10m에 이를 정도로 높은데 이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1996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철원군에 7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강물이 범람하고 마을을 완전히 휩쓸었다. 강물이 급격히 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상이 높아 마을에서 강으로 빠져나가야할 우수(雨水)가 못 나가고 그대로 마을을 침수시킨 것이다. 비가 그치고 물은 빠졌지만 살림살이와 가재도구가 모두 쓸려나가 삶의 터전은 완전히 폐허가 됐다. 결국 정연리는 기존 마을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산등성이 아래 지대가 높은 곳에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였고 신정연리라 이름 붙였다. 원래 정연리는 금강산전기철도가 지나던 정연역을 중심으로 번성했으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없어졌다. 전쟁은 끝났지만 고향 땅에 휴전선과 DMZ(비무장지대)가 설정되고 민통선으로 묶여 들어갈 수가 없었다. 1970년대 접어들면서 남북한 체제대결이 다소 완화되고 전방지역 농지개간 및 식량증산을 위해 민통선 안 지역에 민북마을이 새롭게 건설되었다. 정연리 마을은 1974년 120세대가 집단으로 이주해 현재에 이른다.

인적이 거의 없는 정연리 한탄강

강폭이 넓은 곳 제방 위에 서서 하류 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강의 수면과 울창한 나무들이 한눈에 보인다. 제방 오른쪽으로 이길리 마을이 있고 일직선으로 놓인 제방 위 오솔길은 기차 철도를 연상케 한다. 푸른 강물에 비쳐진 산의 잔영은 실제 모습보다도 더 짙어 보인다. 강폭이 넓고 파란 강물이 가득하니 한탄강이 이제 진짜 강인 듯하다. 여러 가지 여름철새들이 꽃이 만발한 산을 배경으로 파란 강물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이다. 물이 가득해도 깊지 않아서 강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강 주변에는 자갈들이 무수히 많다. 정연리 마을을 지나 저 멀리 북쪽 신정연리 마을에서 흘러드는 조그만 개천을 건너면 옛 정연초등학교 자리에 세워진 강원학생통일수련원이 나온다. 강폭은 여전히 넓고 그저 잔잔하다. 물의 흐름은 멎었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강물만이 살랑살랑 일렁인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의 반

사로 은빛 물결이 물고기 비늘같이 반짝인다. 제방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논과 마을이 왼쪽에 강물이 일렁이고, 제방을 따라 난 오솔길 옆으로 전봇대가 쭉 이어진다. 강을 따라 내려가면 강물은 저 멀리 강의 동쪽 사면으로 사라지고 돌과 자갈만이 가득한 지역이 나온다. 강 건너편 나무가 울창한 지역은 마치 섬과 같다. 그 앞에 강물이 몰려있는 곳은 갖가지 여름철새들이 먹이활동도 하고 보금자리 쉼터로 사용한다. 울창한 숲과 강물이 만나 습지를 이루고 늪지대가 만들어져 철새들이 마음껏 노니는 것이다. 마을의 반대쪽이니까 사람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고 뒤쪽으로는 산이 막혀있어 철새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천혜의 공간이다.

▶ 두루미 탐조여행의 핵심 이길리 조류관찰소

이길리 조류관찰소 앞 한탄강

한탄강 제방 길을 따라 하류 쪽으로 걸어서 이길리 마을에 다다르면 조류관찰소가 나온다. 항구적이고 훌륭한 건축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운치가 있다. 관찰자들이 새들에게 노출되지 않게끔 짚으로 사람 키보다 더 높은 벽을 30여m 만들었다. 관찰자는 짚 벽 뒤에 숨어서 철새가 놀라지 않게끔 먹이활동을 하거나 쉬고 있는 철새들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기도 한다. 예로부터 이곳은 겨울철새 두루미가 많이 찾는 곳이다. 그래서 제방 길 이름도 두루미 탐방로이고 이곳 조류관찰소에서 겨울철에 두루미를 관찰한다. 철새마을인 이길리에서 운영하는 겨울철새 두루미탐방 프로그램은 외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두루미 탐조여행은 물론이고 마을에서 갖가지 놀이와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한다. 관찰소 앞쪽 한탄강은 가물어서 물이 별로 없고 자갈과 모래밭이 200~300m 펼쳐져있다. 그 옆으로 갈대가 무성하고 그 뒤편에는 버드나무 같은 작은 나무들이 울창하다. 탐조대 반대편 강변으로 강물이 모여 흘러가니 그곳에 갖가지 여름철새들이 모여 있다. 백로·왜가리·뻐꾸기·꾀꼬리·호반새 등 여름철새들은 겨울철새인 두루미만큼 집단서식을 하지도 않고, 이따금씩 한탄강 주변을 날아다니다 눈에 띄는 먹이를 낚아챈다. 조류관찰소 하류 쪽은 군데군데 갈대숲이 군락을 이루고 조그만 수목들이 울창하다.

▶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양지리 두루미탐조대

이길리 조류관찰소에서 300m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 두루미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겨울철새 두루미탐조대가 나온다. 이길리 관찰소보다는 좀 더 오래되었고 바로 앞에 두루미 잠자리가 있어 겨울철에 탐조객들이 줄을 잇는다. 사실 이곳은 두루미 관측도

관측이지만 사진을 찍는 전문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길리 관찰소보다 더 세련되게 짚 풀 담벼락을 만들어 놓았고 담벼락이 끝나는 곳에 찬바람도 피하면서 약간의 난방도 되어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은 이미 전국의 철새전문가들에게는 소문이 나있어 겨울이 되면 두루미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사진작가들로 북적인다. 최근에는 일반 철새 탐방객들에게도 인기가 있어 주말에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오래전부터 이곳은 인적이 매우 드물어 수십 마리의 두루미들이 쉬거나 잠을 자는 보금자리였다. 얼음이 꽁꽁 얼고 눈이 하얗게 내린 강가에서 떼 지어 노니는 두루미들의 군무를 보고 있노라면 추위는 어느새 잊어지고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양지리 두루미탐조대에서 바라본 한탄강

양지리 두루미탐조대 앞 한탄강은 강폭이 200m 이상 될 정도로 무척 넓고 군데군데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갈대숲 사이를 한탄강이 구불구불 흐르는데 그 폭은 20~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드넓은 강바닥 중에 실질적으로 강물이 흐르는 곳은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 지역은 자갈과 모래가 쫙 깔려있다. 탐조대 건너편 강가에는 수풀이 무성한 습지가 형성되고 나무가 울창하며 그 뒤로는 산이 이어진다. 건너편 산의 울창함 수준은 거의 DMZ 수준으로 수십 년 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다. 새들에게는 먹잇감이 풍부하고 사람들의 위해가 전혀 닿을 수 없는 곳이니 천혜의 서식지이다. 산에는 곳곳에 꽃들이 만발하고 이제 연녹색의 잎들이 한창 올라온다. 백로 몇 마리가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옮겨 다니며 물고기를 잡고 있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는 청아하기 그지없다. 금방이라도 큰일 날 것 같이 이따금씩 꽥꽥되는 꿩의 울음소리는 산통을 다 깬다. 성하의 계절이 되면 녹음은 더 짙어지고 곤충과 새 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진다.

▶ 동식물의 낙원인 양지리 양수장 근처 한탄강

양지리 양수장 앞 한탄강에는 강물이 많이 모여 있고 빛깔이 파란 쪽빛을 하고 있어 깊이가 제법 느껴진다. 이곳에서는 강물의 흐름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형상을 하고 있어 강 건너편이 남쪽이 되고 양수장이 있는 쪽이 북쪽이다. 강 건너 남쪽에는 연록색의 녹음이 우거진 나무들이 무성하고 그 뒤편으로는 산세가 험한 산이 가로막고 있다. 산에는 온갖 나무들의 꽃이 활짝 피어 있어 산 중턱이 온통 하얗다. 강가로 내려올수록 연한 녹색의 나무들이 무성하고 강가에는 갈대가 군락을 이뤄 바람에 일렁이는 것이 마치 파도가 출렁이는 것 같다. 양수장 옆 논둑에서 남서방향으

로 흐르는 강의 하류 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에는 현무암 절벽이 있고 왼쪽에는 자갈과 모래사장이 펼쳐진다. 고여 있던 강물은 경사진 여울을 만나면서 소리 내며 요란하게 흘러가고 약간 왼쪽으로 방향을 튼다.

양지리 양수장 앞 한탄강

먼발치서 저 멀리 한탄강의 물 흐름을 바라보면 이곳 한탄강의 형상이 한반도 모양을 띤다. 한탄강에서 한반도 모양을 띠고 있는 곳은 장흥리 마당바위 근처와 이곳 두 군데이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리 높지 않은 새카만 현무암 절벽은 마치 충북 단양 남한강에 있는 도담 삼봉같이 아름답다. 이곳은 한 겨울 저녁이 되면 철원평야에 먹이활동을 나갔던 두루미와 쇠기러기들이 정연리나 이길리에 있는 보금자리로 들어오는 길목이다. 그 날아드는 두루미 대열 모습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장관이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백 대 전폭기가 폭격을 감행하는 것 같다. 한탄강이 정연리와 이길리의 평지 지역을 통과해 이 곳에 이르러 현무암 절벽에 맞닥뜨리는데 오랜 옛날 저 멀리 평강 오리산에서 폭발한 용암이 이곳까지 이르러 멈칫했고 한탄강 강물에 침식되면서 기암절벽이 만들어진 것 같다. 양지리나 이길리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현무암 용암대지가 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풀이 우거진 양수장 근처 한탄강

절벽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절벽을 타고 강가로 내려갈 수 있는 길들은 여러 군데 있다. 강가에 다다르면 새카만 현무암들이 돌무지를 이루며 여기저기 널려있다. 강의 절벽에는 군데군데 현무암 이외에 다른 돌들도 눈에 띠는데 표면 잘려나간 모습이 날카롭고 땅에 박혀있는 모습은 대단히 거칠고 뾰족하다. 절벽의 바로 위가 논이어서 황톳물의 흔적이 간혹 보이고 흙이 무너져 내린 곳은 일부 바위까지 노출되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다. 절벽 아래 부분 어느 지점에는 마치 책장에 책을 꽂아놓은 듯이 현무암이 아닌 암석이 결대로 차곡차곡 박혀있다. 강바닥과 강물 속은 현무암들이 깔려있어 강물은 푸른빛이 아니라 탁한 회색빛을 띤다. 강 건너편은 바닥에서 파여 드러난 화강암 잔자갈들이 눈에 띠고 갈대와 수풀이 울창해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접근조차 어렵다. 그 뒤로는 버드나무 같은 나무들이 정글처럼 우거져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는 적격이다. 우거진 숲 뒤 산 중턱에 벚나무와 살구나무 꽃들이 만발하고

바람에 흔들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이곳의 강물은 흘러가는 것은 분명하나 양이 적어서 그런지 물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다.

▶ 저절로 힐링이 되는 양지리 앞 한탄강

조용한 분위기의 양지리 한탄강

양지리 마을에서 정남쪽 농로를 따라 1km 걸으면 논이 끝나는 부분에 밭이 있고 밭을 따라 내리막 구릉이 이어지는데 길을 따라 조심조심 내려가면 한탄강에 다다른다. 이곳의 한탄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형상이고 강의 양변이 남쪽과 북쪽이다. 이곳의 한탄강은 강의 오른쪽 북쪽 방향은 20~30m에 이르는 현무암 절벽으로 이뤄져있다. 반면 강 건너 반대편인 남쪽에는 야트막한 산이 연이어 있다. 경사면은 절벽이라기보다 산자락 구릉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현무암보다 화강암 등 다른 암석들이 많이 눈에 띠는 것으로 보아 한탄강을 사이에 두고 강 양안이 서로 다른 지질임을 알 수 있다. 남쪽 강변은 자갈과 모래사장이 있고 그 뒤로 산자락이 이어져 나무들이 울창하고 꽃이 만발해 온통 하얗다. 하류 쪽에는 한탄강 특유의 절벽이 이어지고 그 아래쪽으로 다시 모래 자갈밭이 넓게 펼쳐진다. 한편 북쪽 강변은 현무암 절벽이 쭉 이어져 발달해있고 강물과 맞닿은 아래쪽에는 시커먼 현무암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강의 양쪽 절벽 위에는 나무가 열 지어 서있고 워낙 인적이 드물며 고요하게 강물만 흐르고 있다. 이따금씩 절벽 위 논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트랙터 소리만 들릴 뿐이다.

▶ 오래전 섶 다리가 놓였던 동막리 외동교

외동교는 갈말읍 동막리와 동송읍 양지리를 잇는 다리이다. 한탄강 양쪽 절벽에 놓여 지금은 높이가 30m, 길이가 150m에 달하는 거대한 다리이지만 그 옛날 일제강점기에는 섶 다리가 놓였던 곳이다. 당시 갈말지역에서는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동막리 주민들이 나무를 해서 외동교를 건너 양지리 역에서 기차를 타고 철원읍내에 내다 팔았다. 외동교 주변 한탄강 폭은 대단히 넓고 자갈과 모래가 발달해 지역주민들 여름철

동막리 외동교 옛 다리와 현재 다리

피서 장소로 인기가 높다. 양지리에서 흘러온 한탄강은 외동교에서 오른쪽으로 크게 선회하고 꺾이는 방향의 안쪽으로 작은 돌들이 약 200m 가량 깔려있다. 강 양쪽으로는 기암절벽이 이어지고 진달래와 철쭉이 커다란 군락을 이뤄 철원군에서는 가장 진하게 핀다. 절벽 중간에 무성하게 자란 수풀과 나무들이 현무암을 가려 다른 곳보다는 덜 위태롭게 보인다. 절벽 위 라인을 따라 줄지어 서있는 나무들의 모습이 마치 활짝 펼쳐진 아이들 손바닥이 연이어 있는 것 같다. 절벽의 맨 아래 강물과 맞닿은 곳에 시커먼 현무암 바위들이 물고기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다. 경사가 있고 강물이 굽이쳐 돌아가다 보니까 물 흐름소리가 상당히 크다. 강물의 흐름이 빠르고 강폭이 넓어 그리 깊지 않아 견지낚시를 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강가에는 다슬기를 잡는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띈다.

▶ 신이 빚어놓은 돌들의 향연 동막리 화강암대

신이 빚어놓은 동막리 화강암

이곳의 한탄강은 약 500m 구간이 온통 화강암 천지다. 바위들의 크기가 10~20m에 이르는 큰 것이 주종이고 강바닥 자체가 화강암으로 되어있다. 일반 다른 돌들이나 모래, 진흙 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바닥에 깔려있는 화강암이 북극이나 남극에 깔려있는 빙하 같다. 기괴한 모양을 한 산채만한 화강암들이 기기묘묘한 형상을 하고 있으니 신이 빚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움푹 파인 강에 기암괴석들로 꽉 차 있는 모습이 화강암 박물관 같다. 거기다가 사람들 발길이 전혀 닿지 않아 태고의 신비가 느껴지고 별천지에 온 기분이다. 오랜 세월에 걸친 풍화와 침식 때문인지 대부분 화강암 표면이 매끄럽고 둥글둥글하다. 그렇다고 일정한 모양을 띠는 것은 아니다. 바위 사이사이에 피어있는 돌단풍과 바위 꼭대기에 뿌리를 내리고 서있는 소나무는 또 다른 장관이다. 바위들이 많고 경사가 있어 강물소리가 요란스럽다. 요란하지만 시끄럽지 않고 경쾌하고 힘차다. 현무암은 거의 눈에 띠지 않고 강 양쪽으로 절벽이 발달해 있지도 않다. 평강 오리산 화산 폭발 당시 퍼져나간 용암이 이곳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듯하다. 강의 왼쪽인 동남쪽 강가로는 수목이 우거진 산이 가로막고 있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강의 오른쪽 서북쪽으로는 얕은 절벽이 있고 그 위로는 농경지가 펼쳐진다. 이곳 논은 인적이 드물어 겨울철에 두루미 가족이 즐겨 찾는 곳이다.

▶ 일제강점기 철원군민 공식 휴양지 칠만암

칠만암에서 바라본 한탄강 상류

칠만암(七萬巖)은 말 그대로 7만 개 바위가 한탄강 바닥을 장식하고 있다. 바위 수를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해학이 엿보인다. 칠만암은 일제강점기 철원공립보통학교를 비롯한 인근 초등학교의 단골 소풍지였다. 여름만 되면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더위를 피해 천렵을 하며 하루를 보내던 장소이다. 그런데 이런 명소가 6.25전쟁 후 DMZ와 민통선이 생기면서 출입통제지역이 돼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다. 지금도 역시 이곳 지리에 밝은 지역주민들의 안내를 받아야만 접근할 수 있다. 직탕에서 상류 쪽으로 한여울길을 따라 걷다보면 금월동과 강회동 마을이 나오고 조금 더 북쪽으로 걸으면 왼쪽으로 대위리 마을이 보이고 야트막한 전차방어벽이 나온다. 이 방어벽이 70~80년대에는 민통선 역할을 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방어벽에서 한탄강을 내려다보면 칠만암의 커다란 바위가 수풀사이로 어렴풋이 보인다. 논둑길을 따라 50여 m 가면 울창한 수풀 사이에 한탄강으로 내려갈 수 있는 소로가 나온다. 수직 절벽은 아니지만 경사가 급한 절벽을 내려가는 숲길이라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한다. 경사도 경사지만 워낙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밀림을 헤치고 내려가는 기분이다. 내려가기는 어렵지만 강가에 도착하면 완전히 딴 세상에 온 기분이다.

집채만 한 칠만암 화강암 바위들

집채보다도 훨씬 큰 화강암 바위가 우람하게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그 주변에는 갖가지 모양을 한 화강암들이 삐죽삐죽하게 뻗어있다. 다른 지역 한탄강 화강암보다 더 뾰족하고 거칠고 투박하다. 모양만 보면 화강암이 아니라 급속히 냉각되어 기괴하게 생긴 현무암 같다. 칠만암 전체 화강암 군락의 크기는 대략 300m는 될 것 같고, 가장 큰 화강암 한 덩어리가 50m는 족히 넘을 거 같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태초의 모습 그대로다. 주변에 공룡의 발 같이 생긴 기괴한 모양을 한 바위가 있는데 그 넓이가 20m 정도이다. 화강암은 현무암 용암이 넘치기 전 원래 한탄강 기저에 있던 것이 물과 바람에 침식되어 드러난 것이라 한다. 이곳의 화강암들은 마치 죽순 자라듯이 강바닥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것 같다. 가장 높은 화강암 바위에서 상류 쪽을 바라보면 비교적 확 트인 개활지 바닥에 갖가지 모양의 돌들이 깔려있어 흐르는 강물이 힘겨워 보인다. 대부분 화강암 지역이 그러하듯이 강 양쪽 절벽은 그리 경사가 급하

지 않다. 화강암에 절리가 생긴 곳에는 돌단풍들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고 군데군데 짙은 녹색의 이끼도 뒤덮여있다. 거대 화강암 옆으로 흐르는 강물은 마치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이 우렁차게 흘러가고 그 깊이도 4~5m에 이를 것 같다. 한편 칠만암은 조선 중기 광해군 때 철원출신으로서 명나라 구원병의 좌영장으로 출정해 후금 군대와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전사한 충무공 김응하 장군이 청년시절 무예를 닦았다는 전설이 전한다. 최근에 강 건너편 상사리(송호동)에 초대형 군 포 사격장이 들어서 수천년 내려오는 화강암 절경이 망가질까 염려가 크다.

▶ 태고의 신비감이 도는 강회동 한탄강

절벽사이로 보이는 강회동 한탄강

오덕7리 강회동 마을 부근 한탄강을 보려면 가파른 절벽 길을 따라 내려가야만 한다. 절벽을 내려가는 좁은 길 사이로 얼핏 보이는 강물의 빛깔이 유난히 짙고 푸르다. 푸른 강물이 마치 거울인양 양쪽 절벽의 모습이 그대로 비추어져 있다. 절벽 아래 강으로 내려오니 바람이 시원하고 햇볕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난다. 한탄강 절벽 사이 쾌청하고 맑은 하늘이 반겨주고, 아늑한 공간 사이로 6~7가지 다양한 여름 철새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아직 본격적인 봄은 시작되지 않았으나 여름 철새들의 낭랑한 울음소리에서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양쪽 절벽은 매우 가까이 서로 마주하고 있어 아주 좁게 느껴진다. 절벽 양쪽 위에 서있는 나무들이 마치 강을 찾은 손님맞이를 위해 가지런히 도열해 있는 듯하다. 나뭇가지들을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 마치 참빗 같다. 이곳의 강폭은 10여 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옥빛의 푸른 강물이 조용하게 흐른다. 강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조그만 개울 상류 여울 같은 느낌만 든다.

절벽 양안에 깔려있는 현무암은 유난히 새카맣고 이끼가 잔뜩 껴있어 화산폭발 당시 태고의 신비가 그대로 느껴진다. 절벽은 수직보다 더 가파라 위쪽이 더 나오고 오히려 아래쪽이 움푹 들어가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하다. 절벽에는 갖가지 나무들이 힘겹게 매달려 있고 봄을 맞아 가지마다 이제 새싹들이 돋아나려 한창 부풀어 있다. 어느 나무는

강회동 한탄강 상류 쪽